

강장제



민간 전래의 술한 처방 [허구]

인류 역사상 강장제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끈 것도 드물다. 겉모습이 남성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하여 바나나와 꿀을 강장제로 생각한 일도 있었다. 바나나는 성기와, 꿀은 고환과 닮았기 때문이다. 꿀은 오랫동안 성욕을 촉진하는 음식으로 믿어져 왔으나 과학적인 분석 결과 별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람들은 희귀하거나 새로운 물건을 강장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감자가 영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영국인들은 이것이 성욕을 촉진시키는 음식이라고 믿었다. 하루에 수십 마리의 암컷과 교미를 한다고 하여 정력의 상징으로 알려진 물개의 고환인 해구신, 호랑이의 음경과 고환, 독사, 자라, 코뿔소의 뿔, 음양곽, 인삼, 마늘, 버섯, 녹각 등등에다 몇몇 비타민과 당귀 같은 한약재를 섞어놓은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정력제, 강장제들이다.

사람들이 가장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 성욕촉진제는 알코올이다. 알코올은 소량을 섭취하는 경우에 죄의식과 자기억제를 풀어주는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장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도를 넘어서면 몸 전체의 혈관이 확장되어 발기를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성욕을 억제시킨다.

아프리카에서 사용하던 요힘빈 나무에서 추출한 요힘빈은 현대 의학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강장제였다. 그러나 미국 식품의약관리국(FDA)은 1973년 이 약의 판매를 공식적으로 금지시켰다. 요힘빈의 효과를 분석한 10여 개의 과학적인 연구논문에 따르면, 요힘빈도 위약(偽藥) 효과 이상은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나온 조치였다.

민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강장제는 효과면에서 요힘빈보다 훨씬 의심스러운 것이 많다. 꿀을 가꾼 한 꿀벌을 비롯하여 구기자, 부추, 마늘, 연밥, 새우, 미꾸라지, 잉어, 홍삼, 해구신, 보신탄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서 비싸게 팔리고 있는 구린내가 나는 과일 두리엔까지 모두 현대 의학에 의해 강장제로서의 의미를 잃은지 오래이다.

1980년대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한 성의학은 요힘빈을 능가하는 새로운 강장제를 찾고 있다. 파파베린이나 지난해 7월 FDA의 승인을 받은 프로스타글란딘 E₁ 등은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약이 아니고 주사로 맞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탁월한 효과를 자랑한다.

먹는 약 중에서는 항우울제로 쓰이는 트라조돈이나 파킨슨병에 쓰이는 L-도파, 마약 길항제(拮抗劑)인 아포모르핀 등이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약들도 심리적인 면은 무시하고 생리적인 성욕과 성기능만 증가시켜줄 뿐이다.

사랑과 성욕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한 여자에게서 사랑(감정)을, 다른 여자에게서 성욕(쾌락)을 찾는 남성의 심리적인 분열을 이런 약들이 조장하는지도 모른다. 아주 평범한 얘기 같지만 적절한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성인병을 적절히 조절하고 술, 담배를 줄이는 것이 아주 가는 음경동맥의 혈액순환에는 값비싼 강장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세계 남성 85% 시술 안 해

미국에서 가장 흔한 수술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그것은 포경수술이다. 미국에서 새로 태어난 남자아이의 59%가 음경의 포피를 잘라내는 이 수술을 받는다. 60, 70년대에는 90% 가까운 신생아가 이 수술을 받았으나 지금은 감소 추세를 보인다.


생후 며칠 안에 이루어지는 이 수술은 포피와 귀두 사이의 조직을 벌려서 마취없이 포피를 잘라냈다. 신생아들은 통증을 안 느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 소아과학회는 어린이도 어른과 같이 마취를 해야 하고 또 진통을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생아에 대한 전신 또는 국소마취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포피의 역할은 무엇일까. 음경이 발기하면 음경의 길이는 평균 약 50% 정도 길어진다. 이때 포피는 음경이 완전히 발기하는 데 필요하다. 포피에는 혈관과 신경이 풍부하게 퍼져 있다. 성적 자극을 받으면 늘어나면서 성적 흥분을 고조시키고 사정반응을 촉진시킨다. 더구나 포피의 점막은 자위에 따르는 자극을 완화하고 이성과의 성관계 때에는 여성의 점막과 접촉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윤활작용을 한다. 그래서 심한 접촉으로 생기는 상처를 막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등의 침입을 막아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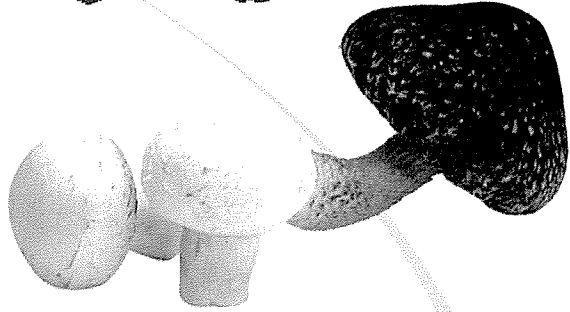
19세기에는 자위가 거의 모든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점막과 점막의 접촉을 막아 성적 흥분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포경수술을 했었다. 유태교인과 이슬람교인이 이 수술을 한다. 유태교인은 생후 8일째, 이슬람교에서는 13세 되는 때에 이 수술을 받는다.

96%의 신생아는 귀두와 포피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계속된 상피조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조직은 아주 민감한 귀두를 소변이나 대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붙어 있다. 포경수술을 반대하는 측의 의견은 이 시기의 수술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포피와 귀두의 자연스러운 분리를 인위적으로 조장하고, 귀두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까닭에 그 두께가 두꺼워지고 감각이 둔해진다는 것이다.

1975년에 미국 소아과학회에서 너무나 당연시하게 여겨왔던 포경수술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위생상의 목적이라도 개인적으로 청결을 유지하는 편이 수술을 받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다. 포경수술을 한 사람은 요도감염이 적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아직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신생아 시기에도 마취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마취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세계 남성의 82%는 포경수술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포경수술을 안 한 사람들은 에이즈나 매독 같은 성병에 걸릴 위험이 많기 때문에 개인위생에 더 주의해야 한다. 외관상 보기 좋게 하고 성병에 걸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수술을 한다면 굳이 신생아 때 할 필요가 없다. 귀두와 포피가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사춘기 이후에 해도 된다는 것이다. 

포경수술



〈편집자 주 : 이 원고는 설현욱 박사의 인터넷 사이트 (<http://www.sex-academy.com>)에 게재된 원고를 필자의 동의 하에 실게 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02-512-1101)〉